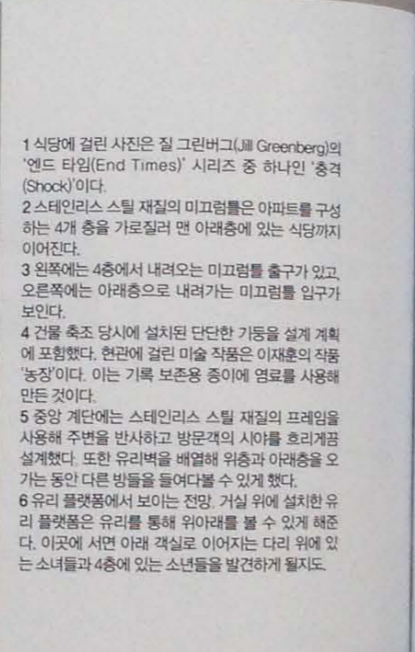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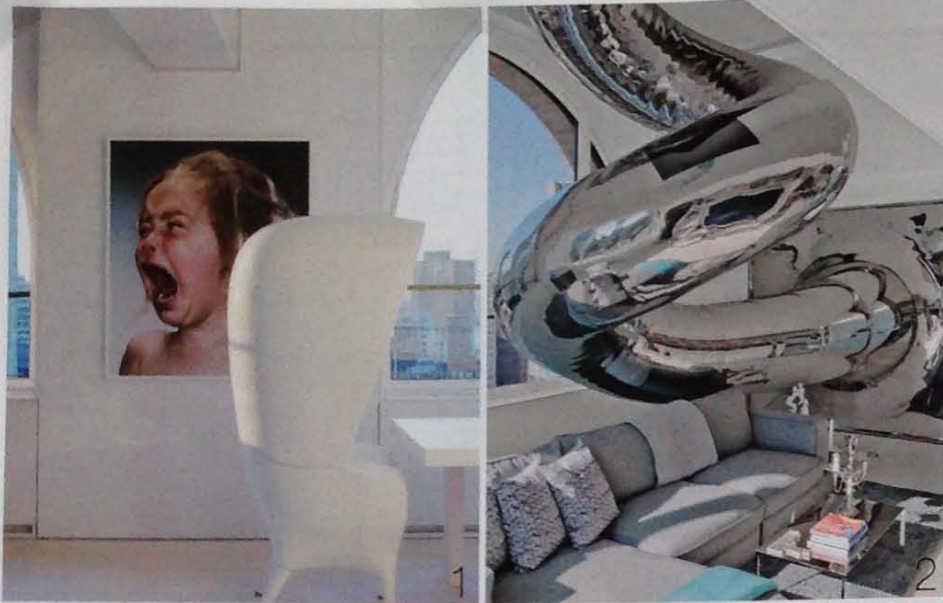


맨해튼을 품은 뉴욕의 펜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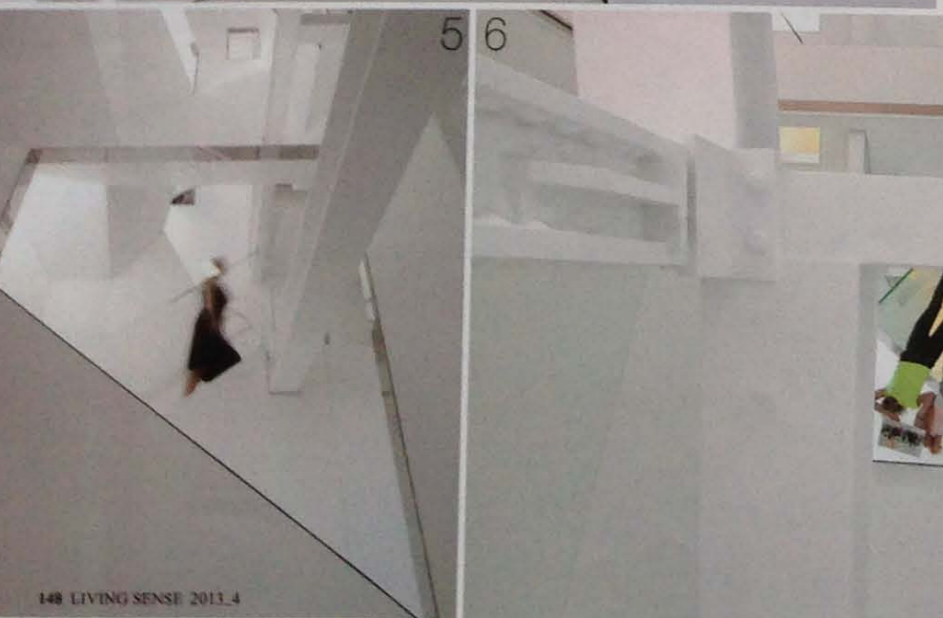
집안에 미끄럼틀이 있고 클라이밍 월이 설치된, 평범한 집의 이미지를 넘어선 곳. 깔끔한 화이트 톤 인테리어에 뉴욕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커다란 창문, 마치 갤러리 같은 이곳은 '줄겁고', '놀라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이다.
기획_공현주 기자 진행_원현주(프리랜서) 글_랜 필립스(Lan Phillips) 사진_에릭 레이그넬(Eric Laignel)



편칭으로 장식된 소파는 백스터(Baxter)사의 파울라 나보네가 디자인한 체스터 문(Chester Moon)이고, 클리닝 소파는 프리베토(Freibeto)사의 피에르 루이지 프리베토가 디자인한 파라마운트 모델이다. 다과용 탁자는 UM 프로젝트(UM Project)가 디자인한 것으로, 황동과 옷걸이 볼 푸레나무를 소재로 만들었다. 소파 오른쪽에 놓인 작은 원형 탁자는 롭 덕슨의 나사 테이블(Screw Table)로, 의자 다리는 주철로 만들었고 상단부는 하얀 단풍나무 소재로 처리했다. 창문 앞의 검은색 스탠드는 플로시(Fos)사의 세바스찬 캄이 디자인한 스펀(Soun) 모델. 양모 깔개는 사코 카펫(Sacco Carpet)사의 제품이다. 벽에 걸린 예술 작품은 제프리 노트먼의 2004년도 작품인 '플랫 워터(Flat Water)'다.



1 식당에 걸린 사진은 질 그린버그(Jill Greenberg)의 '엔드 타임(End Times)' 시리즈 중 하나인 '충격(Shock)'이다.
 2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미끄럼틀은 아파트를 구성하는 4개 층을 가로질러 맨 아래층에 있는 식당까지 이어진다.
 3 왼쪽에는 4층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 출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미끄럼틀 입구가 보인다.
 4 건물 축조 당시에 설치된 단단한 기둥을 설계 계획에 포함했다. 한편에 걸린 미술 작품은 이재훈의 작품 '농장'이다. 이는 기록 보존용 종이에 염료를 사용해 만든 것이다.
 5 중앙 계단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프레임을 사용해 주변을 반사하고 방문객의 시야를 흐리게끔 설계했다. 또한 유리벽을 배열해 위층과 아래층을 오가는 동안 다른 방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6 유리 플랫폼에서 보이는 전망. 거실 위에 설치한 유리 플랫폼은 유리를 통해 위아래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곳에 서면 아래 객실로 이어지는 다리 위에 있는 소녀들과 4층에 있는 소년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이곳은 평범한 집이 아니다."

실내 디자이너 기슬랭 비나스(Ghislaine Vinas)는 건축가 데이비드 핫슨(David Hotson)과 공동으로 설계 작업한 4층 아파트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다. 이곳은 그녀의 말처럼 평범하지 않다. 두 전문가의 협력과 기발한 감각으로 가득 찬 놀라운 공간으로, 무엇보다 14m 높이의 거실과 25m 길이의 미끄럼틀, 그리고 약 138.8㎡(42평) 크기의 테라스가 특징이다. 집 구조를 떠받치는 기둥에는 흔들리는 클라이밍 월(climbing wall)을 설치했고, 뉴욕의 멋진 경관을 360도로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핫슨은 이 작업이 "특별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기회였다"라고 말한다.

아파트는 1894~1896년 사이에 건축되었다. 맨해튼 지역 하부에 건축된 2층 고층 빌딩인 시티홀의 최상부 4개 층을 이루고, 전체 크기는 611.5㎡(186평) 정도다. 이 빌딩은 시티홀 동쪽으로 고층 건물이 늘어선 뉴스페이퍼 로(Newspaper Row)의 일부다. 건물은 2002년에 분양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최상부 4개 층의 경사진 지붕과 아치형 창은 이 건물의 차별되는 특징이다. 핫슨은 "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웅장한 저택을 지은 셈"이라고 강조한다.

이 층들은 냉방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보다 고층에는 가정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며, 작은 부엌과 욕실이 있었을 뿐이다. 이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건축가의 사무실로만 이용되었다. 그러나 맨델 워싱턴과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인사이드 맨>의 한 장면이 촬영되기도 해 핫슨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영화 세트장 일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의뢰를 받은 비나스와 핫슨은 새로 설계에 도전하는 일을 겁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뉴욕에서는 드물게 수직 공간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흥분했다. 이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도 비슷한 위치에 4층으로 구성된 편이 있었다. (핫슨은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발판을 6m가량 높였다.) 그러나 유리로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높은 느낌은 없었다. 핫슨의 디자인에서 가장 전략적인 부분 중 하나는 각 층 끝에 유리 공간을 만든 것이다. 이로써 유리 플랫폼과 다리가 교차하는 구조가 생기며, 유리를 통해 위로는 처마가, 아래로는 거실이 보이는 아찔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집주인은 비나스와 핫슨에게 모던한 느낌의 설계를 요구했다. 두 디자이너는 "건물의 외관에는 구리 소재의 처마 돌림띠와 테라코타제 타일, 그리고 달걀과 화살을 닮은 문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소하고 현대적인 장치와 대비시킨다면 무척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핫슨은 무엇보다 '출근길', '재기 발랄하며', '놀라운'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더불어 공간을 복잡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 바로 이 아파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흔란스럽고 공간이 교차된 광경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공간은 보는 이를 압도하고 공간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죠." 그가 말한 예가 바로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주변 경관을 반사하며 보는 사람의 시야를 어렵게 만드는 중앙 계단이다.

아파트의 벽은 경사지게 설계했으며, 아파트를 이동하는 경로는 다양하게 돌려 있다. 예를 들어 사다리를 통해 거실에서 사무실로 이동할 수 있는 것 등이다. 그럼으로써 같은 공간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게 된다. 비나스 자신도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녀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설계 계획에 집중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비나스에게는 자신들의 화려한 건축 작품을 주거지로 사용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녀는 "고객은 아파트의 화려함에 감탄하지만 이곳을 일상적인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나스는 설계할 때 흰 배경을 강력히 고집했다. 흰 배경은 비나스의 설계에서 밝은 색상을 오히려 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는 마치 캔버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특히 초록색과 주황색을 좋아했다. 욕실 한 개에는 선명한 분홍색과 생동감 있는 파란색을 활용했고, 또 다른 욕실에는 노란색을 입혔다. 하지만 집주인은 은은한 색도 어느 정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인은 프라다 상점에서 볼 수 있는 녹색 계열을, 남편은 크림색을 원했다. 핫슨은 "나는 여러분의 깨끗하고 하얀 공간에 매료되었고, 매우 연한 색상을 사용할 생각이었다"라며 집주인의 요구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비나스는 "데이비드 핫슨의 디자인은 놀라우만치 깨끗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그와 달리 공간을 어렵히고자 한다"고 말한다. 결국 그녀의 작업은 기분을 매우 들뜨게 하는 긴장감을 만들었다. 핫슨은 "이목을 끄는 설계를 둘러싸고 우리들 사이에 벌어진 경쟁과 서로 간의 차이는 이번 설계 계획을 성공시킨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말한다.

그들 설계의 공통점은 기발함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핫슨은 집주인이 키우는 두 마리의 고양이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도 만들었다. 이것은 방에서 방으로 이어지는 3차원 미로 같은 통행로다. 눈에 띄지 않는 창도 여러 개 설치했다. 욕실에 있는 약품 보관함에 구멍을 내고 그 틈새로 아파트를 둘러보고 창문 밖 맨해튼 다리까지 이어지는 길을 내다볼 수 있게 말이다. 핫슨은 즐거운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은 휴가지에서 사와 선반 위에 장식한 기념품처럼 작게 축소된 맨해튼 다리의 모습이다"라고. 또한 비나스는 방 하나에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 목장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화려한 벽지를 발랐고, 거실 위에 드리워진 유리 플랫폼에는 꽃문양을 파편처럼 흩뿌린 소파를 비치했다.

집주인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반영되었다. 그중 하나가 스테인리스 스틸 미끄럼틀이다. 이것은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카르스텐 홀러(Carsten Holler)의 '테스트 사이트 2006'과 애니메이션 <윌레스와 그로밋>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아침에 깨어나 침대에서 공장 주방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하고 싶다"고 남편이 말했다. 그러자 핫슨과 비나스는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끄럼틀은 독일에서 제조해 크레인을 이용해서 발코니까지 들어 올린 다음 용접과 광택 작업을 마쳤다. 이것은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과 도목 기술이 발휘된 것이라고 핫슨은 말한다.

한편 이것은 비나스에게는 실용성을 염두에 둔 작업이기도 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2층에서 빠르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실제적인 일에 이용되는 것이다." 남편은 이따금 미끄럼틀에서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이 작업은 비나스와 핫슨의 평범함을 거부한 기발한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다.

식탁은 카운셀 디자인(Council Design)사의 디비스 모델 의자는 폴 스튜디오(Knoll Studio)의 에로 사리넨이 디자인한 '관형 다리 중역 의자(Executive Chairs with Tubular Legs)'다 상들리에에는 팀 피쉬락이 디자인한 '왓 와트?(What Watt?)'로, 1246개의 전구가 들어져 있다. 접시 장식물은 기술령 비나스가 디자인하고 아이레 벨(level)사가 설치한 것



욕조는 브레인올트라(Brainutra)사의 오리카미 컬렉션에 소개된 제품이며, 수도꼭지는 볼라(Vola) 제품이다. 마룻바닥은 자기 타일 소재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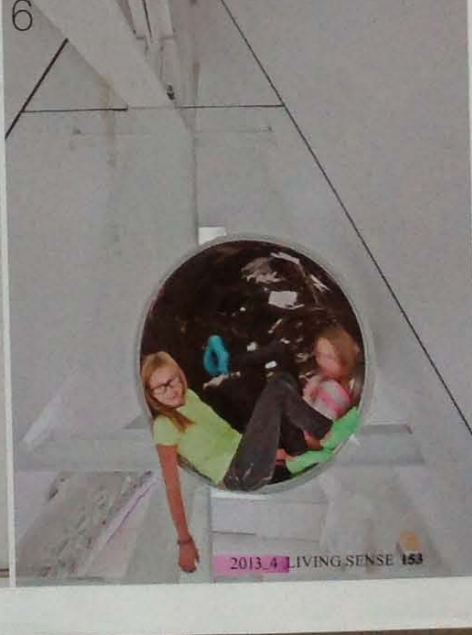


이탈랜드 식탁 앞에 놓인 화이트 스톨은 헤일 인더스트리얼 디자인(Hale Industrial Design)사의 A 스톨(A Stool) 모델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다. 카운터에는 나노 글라스를 사용했으며, 수도꼭지는 돈브라체(Dombrach)사 제품이다. 부엌 위로는 복층 사무실이 있다. 2개의 주황색 의자는 ABC 카펫&홈(ABC Carpet&Home)사의 제품

3층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게 설치한 유리 플랫폼, '동지' 주문 제작한 소파는 S 해리스(S.Harris)사의 100% 리넨 소재 덮개인 메가친츠(Mega Chintz)를 썼었다. 건물을 구조적으로 지탱하는 기둥 중 한 개에 클라이밍 월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1 면 소재 침구는 캐슬 베딩(Castle Bedding), 가두리를 끈으로 장식한 흰 베개는 크리스틴 맥스웰(Christen Maxwell) 제품, 오른쪽에 놓인 것은 UM 프로젝트(UM Project)사가 디자인한 램프로 나무와 글라스 튜브를 소재로 사용했다.
 2 3층 침실은 미끄럼틀이 인-출구 없이 통과하는 유일한 층이다. 침대 머리맡의 벽은 DFC와 데이비드 프랑코가 마이클 잭슨 소유의 네버랜드 목장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디지털 이미지의 벽지로 도배되었다. 벽지는 플레이버 페이퍼(Flavor Paper)사에 의뢰해 방 크기에 맞춰 제조했다.
 3 메인 침실의 침대는 덕시아나(Duxiana)사의 제품이며, 붉은색 의자는 모로소(Moroso)사의 파르시아 우르퀴올라가 디자인한 블루미 모델이다. 상들리에에는 바로비에르&토스(Barovier&Toso)사의 에르푸드 모델로, 무라노 유리 소재로 제작했다. 벽지는 플레이버 페이퍼(Flavor Paper)사의 댄 펀더버그가 디자인한 시티 파크로, 모티브는 쥐나 주차로 징수기 같은 대도시 소재에서 따왔다.
 4 메인 침실 밖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에서 보이는 전망 25m 길이의 미끄럼틀은 카르스텐 휠러의 설치물과 '월리스와 그로밋(Wallace and Gromit)'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했다. 독일에서 제조하고, 크레인용 이용해 건물 꼭대기까지 들어올렸다. 미끄럼틀에는 내려오는 길을 따라 튜를 만들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서 틈새로 아파트의 여러 층을 볼 수 있다.
 5 클라이밍 월의 폴라우레탄 재질 손잡이는 트리볼 클라이밍(Three Ball Climbing)사의 것이다.
 6 미끄럼틀 입구는 꼭대기 층에 설치되었으며, 아래로 빙이 내려다보인다.



4층 빙은 건물 꼭대기의 경사진 지붕 아래 숨어 있다. 집주인 부인은 비나스에게 프라다 제품에 쓰이는 녹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에 비치된 사진은 토드 셀비의 2008년도 작품인 '자크의 마릴린 먼로 약병(Jacques' Marilyn Monroe Pill Bottle)'이다. 실내 디자이너인 자크 그랑지의 파리 소재 아파트에서 벽난로에 걸터앉은 여배우와 그녀의 약병을 사진에 담았다. 동물 모양의 베개는 스피트파이어 걸(Spittfire Girl), 작은 줄무늬 베개는 유니슨(Unison), 큰 줄무늬 베개는 마리메코(Marimekko) 제품이다. 침구는 베드 배스&비욘드(Bed Bath and Beyond), 벽의 부착식 걸이는 A+사의 ENO와 세바스찬 버그너가 디자인했다.



1 다락의 소파는 로세 보보아(Rocce Bobois)의 한스 홀퍼가 디자인한 마쭈(Mah Jong) 모델로, 장 폴 고티에가 개발한 섬유 소재 덮개로 감쌌다. 섬유유리 재질의 조형물은 존 폴 카이저(Jon-Paul Kaiser) 제품. 2 약 138.8㎡(42평)인 테라스에 서면 맨해튼의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이루는 멋진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1894~1896년에 건축된 이 건물의 장식미 화려한 외관은 내부의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대비된다. 누워 쉴 수 있게 설계된 노란색 의자는 프란시스코 로타가 디자인하고 파올라 렌티(Paola Lenti)에서 제조했다. 러그 역시 파올라 렌티(Paola Lenti)사의 제품 모델인 조(Zoe)를 사용했다.

